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찬란한 전통 불교문화 복원”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한국불교의 메카로 통하는 부산불교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불교 전통문화를 일반인과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과 모든 종파를 조율, 화합하는 불교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은 부산불교에 거는 불교계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 한해 살림을 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천태종을 비롯 모든 종단이 초종파적으로 불교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불교연합회는 1천300여명에 달하는 회원사찰수가 말해줄듯 사업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

“부산지역은 단위사찰별로 활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제한 성오스님은 “각 단위사찰별로 복지법인, 사단법인 등을 만들어 부처님 자비를 펼치는 복지, 장학 사업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연합회 차원에서는 전체 행사에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출·재가를 떠나 부산불교의 힘을 모아 전통불교 문화를 현재에 되살려 내고 있는 행사가 시민연등축제와 팔관회.

부처님 오신날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시민연등축제는 몇해전부터 문화행사를 가미, 시민들의 참여도를 부쩍 높였다. 전시, 공연, 복지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분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시켜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나 공연, 연등 만들기 시민연등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그것이 포교로 직결된다는 것, 특히 부처님의 철저한 수행력을 되새기기 위한 부산역 광장 삼천배 절하기도는 이제 불자들이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팔관회는 불교의 전통행사를 발굴, 계승한다

연등제 · 팔관회 시민과 함께

타종교와 교류 · 화합 실천

는 취지로 일반인들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연합회는 북한에 내북 보내기 운동을 계획하고 올 부처님 오신날 행사기간부터 모금과 물품 모집을 대대적으로 벌여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오스님은 “무슨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종단간에 화합하고 출·재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종단간 갈등을 잠재우고 화합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한 성오스님은 이제 타종교와의 교류, 협력에 마음을 냈다. 지난해 천주교와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날 상호방문을 턴 것을 계기로 타종교와의 화합과 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

“어떠한 일을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죽이고 전체를 돌아보는 화합에 있다”는 성오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 전체 불자들의 뜻을 모으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널리 화합하는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후쿠덴지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2월26일 보광사에서 채토(茶土)하고 있다.

日인이 통일발원 · 징용영가 추모

후쿠덴지스님, 남·북한 · 日 휴 쉬어 도자기 제작

오구시씨, 한국식 사찰세워 희생자 유골 안치

남북한과 일본의 휴을 쉬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자기 제작에 나선 일본 스님과 태평양전쟁에서 숨진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찰건립에 나선 일본 체육계 인사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다이쇼지(大成寺) 주지 후쿠덴지 다이이치(福田寺大英) 스님과 히젠지(和静寺) 건립추진위원장인 오구시 간지(大越貫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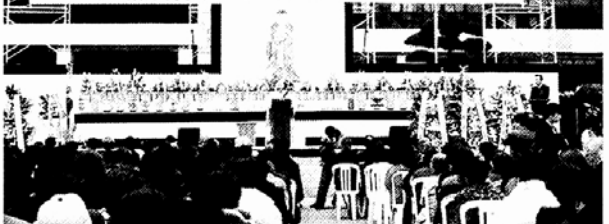
후쿠덴지 스님은 2월 26일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에서 채토식을 거행한 뒤, 이미 확보한 북한의 휴과 원자폭탄 피폭지인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휴을 쉬어 4월 하순까지 도자기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이 도자기에 영어, 불어, 한국어 등으로 남북 평화 기원”이란 문구를 새겨넣은 뒤 남북한과 미국 등 서방 7개국 정상들에게 전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는 서한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백제불교의 문물을 전해준 한국을 위해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 1월 보광사의 장기수 묘역을 둘러본 뒤 도자기 제작을 결심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히젠지 건립을 추진중인 오구시 간지 씨는 일본 프로야구단인 주니치 드래곤스 구단주를 역임했던 일본 스포츠계의 인사.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억울하게 숨진 한국인들의 유골과 영가를 안치할 히젠지를 3월부터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에 건립키로 하고 7천만엔을 들여 3천평의 대지까지 확보한 상태다.

김재경 기자



◇2월27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회. 한국군 노제.

한인 원혼들 59년만에 한국

법연사 136위 위패 봉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회생자 136위 영령 천도제 및 한국봉안 노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조연스님)는 2월 27일 부산역 광장에서 1942년 일 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의 장생탄 광에서 채석 작업중 바닷물이 강도에 유입되는 사고를 당해 익사한 한국인 노역자 136명에 대한 한국봉안 노제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각사 주지 홍교스님,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법연사 회주 조연스님, 한화강 세천년년주당 최고위원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이 동참 한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59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136위 영가 위패는 이날 경주 법연사로 옮겨져 극락전에 봉안됐다.

부산=천미희기자

종단 소식

조계종

대둔사에 선원 건립

제22교구 분사 대둔사(주지 보신)는 올 상반기 중 사찰내 대광명전 근처 광장에 단층현옥 형태로 65평 규모의 선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둔사는 건립비 7억2천만원 중 3억원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4억2천만원을 해군군과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원효종

월정사 장학금 전달

제4교구 분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2월 16, 19일 두 차례에 걸쳐 평창관내 초·중·고교생 11명에게 모두 1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정사는 지난 91년부터 관내의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97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해 왔다.

태고종

장애인 전문법당 건립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서울 신내동에 장애인 포교활성화를 위한 40평규모의 장애인 전문법당을 건립한다.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장애인법당은 박영결거사(한불정 이사)가 부동산 240평을 기부하면서 시작했다.

한편 한국불교청년회는 1일 달마선원에서 제 82주년 3·1절 및 마음의전화 개동 6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모범청소년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각종

진각복지재단 3층 법회

진각복지재단은 2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종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설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장기 근속직원에 대한 포상 및 모범직원

에 대한 표창패 전달, 어린이집 교사대표들의 축하공연, 사회복지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총화종

수중릉서 수중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29일 오후 1시 경주 문무왕 수중릉에서 영산수중재를 개최한다.

이번 수중재는 총화종 종단차원의 행사로 전국외 종도 7천~1만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원효종

애국지사 55인 위패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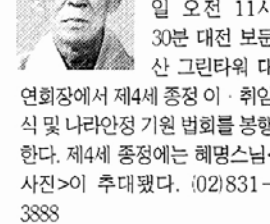
금수사(주지 법흥)는 1일 82주년 3·1절을 기념하여 한운스님 등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과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등 순국선열 22인의 위패를 호국영각에 봉안했다. 이날 위패 봉안식은 법흥스님과 한국전쟁대 금수사로 피난온 초대 부동령 이시형 박사와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

법흥스님은 “이시형 박사가 애국지사의 위패를 모셔달라고 부탁한지 48년만에 약속을 지키게 기쁘다”며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원불교조계종

제4대 중정 취임식

근원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서의훈)은 2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보문산 그린타워 대연장에서 제4대 중정 이·취임식 및 나라안정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제4대 중정에는 혜흥스님<사진>이 추대됐다. (02)831-3888



운흥사 임진왜란 승병 위령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와룡산 운흥사는 2일 임진왜란 때 회두대신 검을 들고 나라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병(僧兵)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올해로 270회를 맞는 이 법회는 돌아가신 마을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운흥사는 성악 전공인 정을 스님과 판소리꾼 최진숙씨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아울러 열었다. 김재경 기자

“범종소리 퍼져 세상 맑게”

은하사 신어범종 이운식

김해 신어산 은하사주지 대성에게

서는 2월 23일 동김해 IC에서 은하사까지 신어범종 이운식을 봉행했다.

대성스님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이운식은 전통기법으로 조성된 12톤의 범종을 은하사 종각까지 이운하는 의식.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은 “웅장하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맑고 밝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이 3m50cm의 통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해 웅장미를 더하는 범종각에 모셔진 범종 타종식은 4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된다.

김해=천미희 기자

영주 中高 종교편향 방지

교육청 간부 2명 고발

영주·봉화실천승려회(회장 도각)는 2월21일 영주교육청 교육장과 학무과장이 관내 6개 사립·중·고교의 종교편향적 교육을 방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천승려회는 고발장에서 “영주 지역 6개 사립·중·고교에서 재학생들을 강제적으로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여케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데 대해 영주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주교육청은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공문 발송에만 그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Mingdang Yuki (氣) Bang' (명당 육기(氣) 방). The ad features a lotus flower logo and text explaining the concept of 'Qi' (氣) and its relationship to health and well-being. It lists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Yuki Bang' (육기방) and 'Mingdang' (명당).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address.